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김 명 철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평생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 단행본 13페이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마련해주신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면서 수십년간 지속되어오던 동서랭전이 종식되고 세계정치구도가 쏘미대결로부터 조미대결구도로 바뀌여지게 되었다.

미제는 사회주의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와의 대결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첨예한 투쟁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불패의 정치군사적위력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였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책동을 제압분쇄하고 적들과의 총포성이 없는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올랐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단연 선군의 가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

게 수호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그 명맥을 어떻게 잇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혁명위업계승문제는 단순히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령도적지위를 넘겨주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사업이며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한치의 드립도 없이 계승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는 군대와 인민으로 되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와 승리의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신것이다.

혁명승리의 가장 중요한 담보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의 주

체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것을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전당 **김일성**주의화를 당건설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었으며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항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도록 하시여 선군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50여년전의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혁명무력건설사에서 처음으로 수령중심의 완성된 군건설강령을 마련하시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하시고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위력한 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건설

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철령과 오성산, 판문점과 초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과 군부대들마다에는 군인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도 그대로 숨배여있다. 군인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은 우리 인민군대를 세계최강의 군대로 되게 한 근본요인이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년토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이 수많은 창조되었다.

최근년간 경제강국건설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어렵고 힘든 대고조격전장으로 파견하시고 그들속에서 창조된 희천속도, 단숨에의 기상을 시대적본보기로 내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세상을 놀래우는 새로운 천리마속도가 온 나라에 나래칠수 있었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가 위대한 현실로 확증될수 있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것도 인민군대를 창조와 건설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시대에 창조한 귀중한 재부와 창조물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의 부강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것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고 민족적과업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량단된 그날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수 없었다.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는것만도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수호에만 그치지 않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까지 열어놓으신것은 일대 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마련과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을 마련하시여 선군의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시였다.

세계력사에는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각이한 형태로 표현되어있다.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기구를 조직하고 조약을 맺기도 했으며 대국들에 의탁하여 평화를 보장받으려 한 례도 있다. 그러나 평화는 절대로 담보되지 않았다.

한세기전의 우리 나라는 대국들의 리해

관계가 착잡하게 뒤엉킨 전략적요충지인 것으로 하여 나라들마다 저들의 지배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발판으로 써먹었다.

현 세기에 와서도 우리 나라의 위치의 중요성에서는 변함이 없는것으로 하여 조선에서의 전쟁은 곧 세계적인 전쟁으로 된다는것이 세계의 일치한 평가였다.

아시아와 세계평화수호의 진두에 거연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대우에 평화가 있다는 철의 진리를 새기시고 강력한 총대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시였다.

가장 포악하고 파렴치한 제국주의우두머리와 그 련합세력과 당당히 맞서 헤아릴수 없는 역경과 전쟁위험을 보란듯이

막아내신 위대한 장군님은 진정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수호자이시였다.

세계는 일치하게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것은 미국이나 대국들이 아니라 다름아닌 조선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이시다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령토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 바로 이것은 한평생 총대를 틀어쥐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령도가 낳은 결정체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장구한 기간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